

소득 늘지만 세금·연금·건보료 더 늘어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 (단위: 원)

구분	2003년 2·4분기	2007년 2·4분기	증감
소득(A)	2,567,235	3,092,159	20.4%
비소비지출	1,809,395	2,102,188	38.9%
-주세	62,595	90,063	43.9%
-공적연금	62,250	77,448	24.4%
-사회보험	52,561	70,319	33.8%
-기타 비소비지출	108,809	159,697	46.8%
처분가능소득(B)	2,281,026	2,694,633	18.1%
처분가능소득/소득	88.9%	87.1%	-1.8%p

세금과 사회보험금 등 비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가 소비 또는

참여정부 들어 '비소비 지출액' 40% ↑ 증가속도 2배...가처분 소득 되레 감소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비율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기준으로 전국가구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8.9%에서 2004년 87.9%, 2005년 87.6%, 2006년 87.4%에 이어 2007년에는 87.1%까지

떨어졌다.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2003년 이후 가계의 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소득보다 비소비지출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2·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

득은 309만2천원에서 4년 전인 2003년 2·4분기(256만7천원)에 비해 20.4% 증가했다. 반면 전국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28만6천원에서 39만8천원으로 38.9% 늘어나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에 육박했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의 월평균 조세지출은 이 기간 6만3천원에서 9만원으로 무려 43.9%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은 6만2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4년간 24.4%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지출은 2003

▲가처분소득 = 가계의 소득에서 조세·사회보험료·타가구 송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소비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가계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소비나 저축역력은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보상비 30조원 풀려

주택건설 등 토지비용 26조 90% 달해

작년 한해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보상비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로 이중 26조원은 토지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km²였던 토지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km²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km²에 그쳤으나 작년엔 393km²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천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천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작년 보상금중 토지보상비가 26조5천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천713억원, 영업보상 2천920억원, 농업보상 2천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천106억원이었다. 토지보상비만을 놓고 보면 작년 보상액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천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천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천461억원을 각각 보상했다.

올 통신서비스 매출 53조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

올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52조8천여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산업은행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의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전망'을 참고해 내놓은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연간 매출액 추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은 지난해 50조6천258억원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2조8천53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등을 포함하는 기간통신 서비스의 경우 HSDPA(고속하향패킷속) 등 3.5세대(G) 신규 서비스 개시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33조5천631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방송서비스는 Pre-IPTV 등의

신규 서비스 확대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9조7천76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해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을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역시 4.4% 증가한 7조3천99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 업무를 제공하거나 구내에서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통신설비재판매와 같은 별정통신서비스 역시 구내통신서비스 호조에 힘입어 2조1천141억원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은 △2002년 42조9천여억원 △2003년 41조6천여억원 △2004년 45조9천여억원 △2005년 46조6천여억원 등으로 몇년간 40조원대를 맴돌다 2006년에 50조6천여억원으로 50조원대의 벽을 처음으로 돌파한 바 있다.



‘메이드 인 개성’ 통일시계 차 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해 북한 개성공단에서 제작된 ‘메이드 인 개성’ 통일시계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까지 1층 매장에서 ‘로만손’과 ‘TF-trofish’ 브랜드의 통일시계를 개당 3만~7만원대에 판매한다.

지난해 은행 수수료 5조

고객 펀돈으로 뭉치돈 수입

시중은행들이 현금 인출,이체 등 은행 거래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땀백~몇천원씩 징수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벌어들인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차병진 의원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주요 7개 은행이 2006년 한 해 동안 거둔 수수료가 4조2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의 3조7천502억원에 비해 10.4% 늘어난 것으로 지방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수수료 수입 총액은 5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조사된 수수료 수입 항목에는 송금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뿐 아니라 외국환·자기앞수표 발행·여신 제증명·신용조사 등 각종 수수료가 모두 포함됐다.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는 수백~수천원의 펀돈이지만 이런 금액을 모아 은행들은 뭉치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은행별로는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1조3천4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인 미이공계 박사 절반 “귀국 NO”

■삼성 연구 ‘두뇌 강국’ 보고서 46%가 현지 정착...고급 두뇌 해외 이탈 심화 배출 박사학위자 수도 美의 6분의 1 수준 불과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학위자 수가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학계열 선호와 해외유출 등으로 고급 두뇌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고급 두뇌를 확보해 두뇌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고 고급 두뇌 풀을 확대해 미래 유망산업과의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두뇌 육성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두뇌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학위자 수는 2002년 기준 2천747명으로,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박사학위자 수도 5.6명으로 스웨덴의 19.2명, 영국의 10.8명, 독일의 10.1명에 비해

46%가 현지 정착...고급 두뇌 해외 이탈 심화 배출 박사학위자 수도 美의 6분의 1 수준 불과

월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바이오, 나노 등 미래유망산업을 주도할 이공계 박사 배출수는 미국의 7%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반면 중국은 연간 공학박사 배출에서 아시아 최고였던 일본을 2000년 추월했고, 이공계 박사 배출에서도 1991년 우리나라, 1994년 일본을 추월한 후 인도를 맹렬히 추격중이다. 우리나라는 의학계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생의 40% 이상이 의,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출신 이공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지 정착률도 1992~95년 20.2%, 1996~99년 31.3%, 2000~03년 46.3%로 급등하는 등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2000년엔 IT 거품 붕괴 후유증 ↓ 2007년엔 서브프라임 충격 해소 ↑

남북정상회담 ‘證市 악발’

7년만에 재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후끈 달아올라 코스피지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상회담 첫날인 2일 코스피지수는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인 지난 7월 25일의 2,004.22를 훌쩍 뛰어넘어 2,014.09로 마감된 것. 한국 증시에서 장기간 엑서서스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이 모처럼 순매도 행진을 멈추고 하루에 무려 6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입한 덕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비호한 대부분 업종이 급등세를 펼쳤으며 특히 일부 남북경협관련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15일 당일 코

스피지수가 5.9% 급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7년의 간격을 두고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천양지차인 셈이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이처럼 악발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당시 국내외 경기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후유증으로 하강국면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당시 증시 주변 여건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스피지수에 대해 상승기를 맞아 꼬의 지수인 2,000선을 처음 밟은 데 이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점차 해소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 증시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휴로넷	[고급직150만원/광주점]SK텔레콤 광주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0/06	011-299-7000
㈜아이지-원 광주공장	생산직 남직원 구합 (보충역 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8	062-951-9212
(재)한국경제연구소	원기계산 및 검토 업무 연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09	062-573-3500
(유)성민	자동차 부품 조립 시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09	062-956-7997
알앤엠(주)	하드웨어 설계제작 시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0	062-941-1789
연호전자	편집 및 광고 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0	062-651-6968
㈜건우특수건설	도급 및 회계분석 시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0	062-973-0772
경주법주 명가상사	건설사무/회계 시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0	062-654-8538
㈜지디	경주법주(주)명가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0	062-575-9706
㈜나경인태서날	제품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3	062-956-2813
㈜그린텔	연회장 출사빙, 지배인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3	062-231-1563
무등fa	KTF순천엠비스플라자 정규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5	042-223-4900
이지오스	납품 및 기술영업 시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5	062-528-8114
	[정규직] 순천 콜센터 운영관리제(S.V)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2-2116-802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수출 증가는 세계경제 호조 덕분

KDI 분석...“원화 강세 불균등 상승”

원화강세 등 대외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장기적으로 호조를 이어간 것은 세계경제의 호조와 수출단가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최근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요인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수출금액 증가세 확대는 주로 달러표시 수출가격 상승과 세계경제 호조에 기인했으며 환율이 나 국제분업 심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2006년에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연평균 6.9% 절상됐지만 수출은 연평균 1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1997~2002년의 3.5%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최근 4년간은 수출금액 확대를 이끈 것. KDI는 2002~2006년의 수출금액 증가율이 1997~2002년에 비해 13.9%포인트 확대된 것은 주로 교역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확대 효과(8.7%포인트)와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증가세를 반전한 데 기인(7.8%포인트)한 것이라고 밝혔다.